

尹 대통령, 訪美·G7 릴레이 외교… 3國 공조체제 본궤도

한일정상회담 통해 관계개선 물꼬
공급망·신산업·안보 협력 강화
독도 영유권 문제 등 비난여론 과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일본 방문으로 한일관계 개선 물꼬를 튼 데 이어 내달 미국 국민 방문과 5월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까지 한미일 3국 공조 체제를 본격적인 궤도에 올리기 위한 릴레이 외교전을 펼친다.

윤석열 대통령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 일본 방문을 마치고 지난 17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이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해법을 '제3자 변제'로 결단함으로써 전격 성사된 한일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서를 외교 재개 ▲수출규제 조치 해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을 합의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윤 대통령의 순방에 대해 12년 만의 정상 양자 방문을 통해 그간 역대 최악으로 치달아 온 한일관계 개선의 전환점을 마련하면서 양국관계를 전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새롭게 발전시켜나가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또, 경제적 관점에서도 공급망 안정, 수출시장 확대, 과학기술 협력 강화 등 양국의 공동이익 달성을 위해 상호 노력 의지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세부적으로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새로운 경제안보 공동체의 핵심 협력 파트너인 일본과의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도쿄 게이단렌 회관에서 열린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공급망 협력과 중요한 교역 파트너로서 반도체·배터리·전기차·콘텐츠·소비재 등 상호 호혜적인 수출 및 전략적 협력 확대, 우주·양자·바이오·수소환원제철 등 미래 신기술·신산업 공동 연구개발 확대와 금융·외환 협력을 새롭게 구축해 위기 상황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그러나 한일 정상은 12년 만의 서를 외교 복원, 수출규제 해제, 안보대화 재개 등의 성과를 냈으나 일본의 과거사 관련 추가 사과나 반성도 없고, 피고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배상에 불참하는 등 국내 비판 여론도 거세다.

이와 함께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위안부 합의와 독도 영유권 문제가 언론을 통해 지적됐으며 향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일본산 수입 수산물 문제 등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길에 여러 난관도 존재한다.

이에 윤 대통령은 다음 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외교 일정을 소화한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연합방위태세 및 대북 확장억제 강화 방안, 포괄적 전략적 동맹에 기반한 첨단기술·경제안보 분야 협력 확대·강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윤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한

미일 3국 협력과 공조를 강조한 만큼 일본 순방 성과와 더불어 미국 국민방문을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오는 5월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할 가능성도 크다.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G7 정상회의 초청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일·한미·미일 연쇄 정상회담을 비롯해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이뤄진다면 대북 확장억제 강화와 경제안보 협력 논의 등 한미일 공조체제는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된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국내 수출 年 26.9억弗 증가 경제성장률 0.1%p 상승 효과”

상의 한일관계 악화 이전 수준 분석
철강, 석유제품 등 13대 품목 악영향
“관계개선, 수출증가율 반전 도움될 것”

한국의 대일(對日) 수출구조가 한일관계 악화 이전 수준으로 복원될 경우 국내 연간 수출액이 26억9000만달러(약 3조5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9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한일 관계 개선이 국내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SGI는 “한·일 관계 개선으로 기대되는 수출 증대 효과인 26억9000 달러는 국내 수출증가율의 0.43%포인트 상향요인이 있다”며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해 우리나라의 일본 수출증가가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해 보면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주요 경제 전망기관들이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1%대 중후반, 신규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10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예측하는 가운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중국의 리오프닝, 원전·방산 수출 확대에 따른 중동 특수 등과 함께 국내 경제의 희망요인으로 기대된다.

SGI는 지역별·품목별 매트릭스 분석을 통해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 이전인 2017~2018년과 현재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13대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일본 수출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국내 산업에서 일본으로의 수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철강, 석유제품, 가전, 차부품 등이 일본과의 관계 악화로 영향을 크게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우리나라 철강 산업의 대일본 수출 비중은 2017~2018년(평균) 11.7%에서 2022년 10.4%로 석유제품은 동기간 10.0%에서 8.2%, 가전은 7.7%에서 6.4%, 차부품은 4.0%에서 2.2%로 많이 축소됐다.

SGI는 “한·일 양국의 관계 악화 후 타격이 컸던 산업의 수출이 이전 점유율을 회복할 경우, 올해 1~2월, 12.1%로 급락한 수출증가율(전년동기대비) 반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수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의 일본 투자 확대도 일본 경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SGI는 “한일 관계 개선은 양국 경제 모두에 도움을 준다”며 “한일 관계 정상화 이후 교역 및 투자 측면에서 효과 극대화 방안을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환경부 | **Kwater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꼭지
잘 잠그기**

**양치컵
사용하기**

**물 받아서
설거지하기**

**샤워시간
줄이기**

**양변기에
페트병 넣기**

**빨래감 모아
세탁하기**

가뭄, 함께 노력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가뭄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부족할수록 아끼고 나누면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수도꼭지 잘 잠그기, 양치컵 사용하기, 샤워시간 줄이기 등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힘들어하는 지역에 힘을 보탬시다.